1. 남성중심적 시각으로 재편된 사회

- 할 수 있으니까 하는, ‘성폭력’

한소망

**가해자와 피해자의 적나라한 시선 차이**

올해 4월, 우리 학교에서는 성폭력 사건 피해자들의 피해사실 폭로가 끊임없이 이어졌다. 사건의 시간대도, 가-피해자의 관계도, 발생한 공동체도 다양했지만 공통적인 사실이 몇 가지 있었다. 가해자들의 사과 대자보의 내용이었다.

피해자들의 폭로는 수도 없이 쏟아졌지만, 가해자들의 대자보 내용은 정말 비슷비슷했다. 본인의 가해 사실을 나열하고, 사과하는 내용이었다. 심지어 ‘그 당시의 나를 이해할 수 없다’ 는 내용도 있었다. 감히 짐작컨대, 본인이 어떠한 맥락에서 가해를 저질렀는지 잘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었을 거라 생각한다.

성폭력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의 이의제기를 받고 나에게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다. 사건 경위를 이미 알고 있던 나는 가해자에게 ‘본인 입장에서 사건을 재구성해볼 것’ 을 권유했다. 그래서 듣게 된 사건 경위는 충격적이었다. 가해자는 본인이 왜 가해자인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. 왜냐하면, 본인의 행위가 ‘성폭력’ 이 아니라 ‘로맨틱한 관계 사이에 흔히 발생하는 스킨쉽 사인 미스’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. 피해자와 본질적으로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랐던 것이다.

**성폭력은 왜 발생하는가?**

한국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***‘성폭력은 나쁜 것’*** 이라고 교육받는다. 하지만 왜 나쁜지, 성폭력이 어떤 맥락에서 발생하는 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가르치지 않는다. 우리 사회는 오히려 성폭력 피해자에게 손가락질하도록 가르친다. 성폭력 교육을 하면서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이다.

***“짧은 옷을 입지 마라.” “밤 늦게 다니지 마라.” “취해서 집에 가지 마라.”***

성폭력을 예방 교육의 초점이 피해자에게 가 있는 셈이다. 하지만 사실 성폭력 문제는 어떤 상황이든, 피해자가 어떤 상태이고 둘의 관계가 어떻고 등등과 관계없이 절대 합리화 될 수 없는 문제이다. 왜냐하면, 모든 강력 사건이 그렇듯 성폭력 역시 ‘가해자의 문제’ 이기 때문이다.

그렇다면 성폭력은 어떤 맥락에서 발생할까?

사실 아주 단순하다. 성폭력은 **권력관계**에서 발생하는 문제다. 흔히들 폭력을 떠올릴 때, 현상에 집중한다.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, 정신적, 심리적 손상과 압박을 가하는 물리적 강제력을 가하는, ‘현상’ 말이다. 하지만 모든 폭력은 강자가 약자에게 강제력을 행사하면서 발생한다. 폭력이 발생하는 관계성, 즉 강제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가 더 주의깊게 봐야 할 지점이라는 것이다.

성폭력 역시 이 관계성을 정확하게 따른다. 2014년 경찰청 통계를 따르면, 성범죄(강간, 유사강간, 강제추행, 기타 강간/강제추행 등) 전체 발생 건수 21055건 중 여성 피해자는 18974명으로, 약 90.12%이다. 가해자의 경우, 전체 검거자 19306명 중 남성 가해자가 무려 18983명으로 약 98.33%가 남성으로 집계되었다.

여기에서 우리는 성별권력을 명확하게 볼 수 있다. 피해자 성비를 차치하고서라도,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의 98.33%가 남성이라는 건 현 한국 사회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지표다. 바로 ‘남성’ 으로 통용되는 집단이 성폭력을 저지를 ‘권력’ 을 쥔 집단이라는 것을 말이다. 권력 집단이 성교육을 만들기 때문에, 우리나라의 성교육은 이상한 방향으로 비틀어져 있다.

**성별권력, 권력 관계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것**

우리는 여기서, 9.88%를 차지하는 남성 피해자에 주목해야 한다. ‘남성’ 집단이 가해자로 지목되었다. 이성애규범이 지배하고 있는 이 사회에서, 남성 가해자가 98.33%인데 남성 피해자가 9.88%라는 건 언뜻 이상해 보이기도 한다. 하지만 자료가 나타내는 것은 명확하다. 남성 집단에 속해있는 개인 역시 권력구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뜻이다. 남성 개인 역시 ‘남성 집단’ 에게 요구하는 가부장제 남성성으로 권력을 판가름하기 때문에, 이상적 남성성을 획득한 사람은 남성 집단 – 남성 중심 사회에서 더 많은 권력을 획득하고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위치에 선다. 그러지 못한 사람일수록 집단으로부터 배제되고 권력과 멀어진다.

하지만 사회에서 남성이 권력을 차지한 지 굉장히 오랜 세월이 지났다. (청동기 시대부터 남성이 사회의 중심이 되었다.) 어떠한 집단이 권력을 획득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나면, 그 집단은 스스로가 권력을 쥐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리게 된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인지부조화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. 사회의 주류 이데올로기가 된 지 너무나 오랜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.

**우리가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것들**

사회의 주류 이념이 남성 중심인 사회에서, 개인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그리 많지 않다. 하지만 본인이 권력을 쥐고 있다는 사실을 어렴풋하게나마 자각하고 있다면,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있다. 바로 ‘성적 자기결정권’ 을 존중하는 것이다.

성적 자기결정권은 그리 어려운 개념이 아니다. 자신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성적 자기결정권이다. 그 중에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행동은 ‘**동의 구하기**’ 이다.

동의를 구하는 작업에서도 우선해야 하는 조건이 있다. 첫 번째는 ‘상대와의 권력관계를 생각하는 것’ 이다. 본인과 상대와의 관계를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. 두 번째는 ‘동의 표현-거절 의사를 잘 표현할 수 있는 환경 만들기’ 이다. 거절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없는 환경은 곧 성폭력을 조장하는 문화와 연결된다.

우리는 성폭력이 만연한 사회에서 살고 있다. 언제든 성폭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방조하고, 오히려 조장하는 분위기가 곳곳에 펼쳐져 있다. 개인이 할 수 있는 건 미약하지만, 수많은 개인이 모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걸 나는 믿는다. 당장 내가 속한 공동체부터 성폭력에 무방비한 공동체가 되지 않겠다 선언했다. 개인의 생각이 조금씩 바뀐다면, 언젠가 이 사회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할 수 있을 것이다.